

목 차

서울대 인문대학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?

서울대 인문대학 졸업 후의 진로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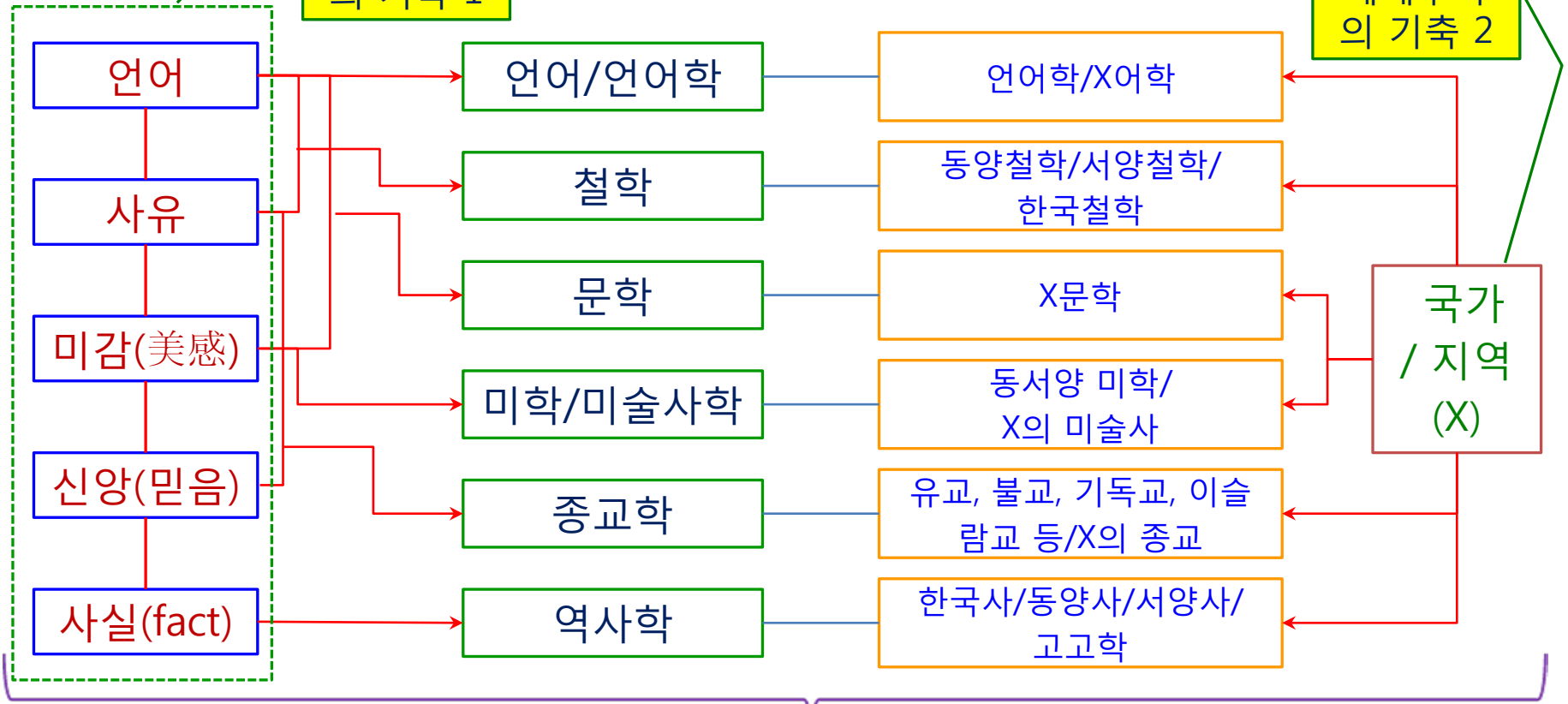
서울대 인문대학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?

서울대 인문대학에서는 무엇을 기르는가?

서울대 인문대학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?

체계구축
의 기축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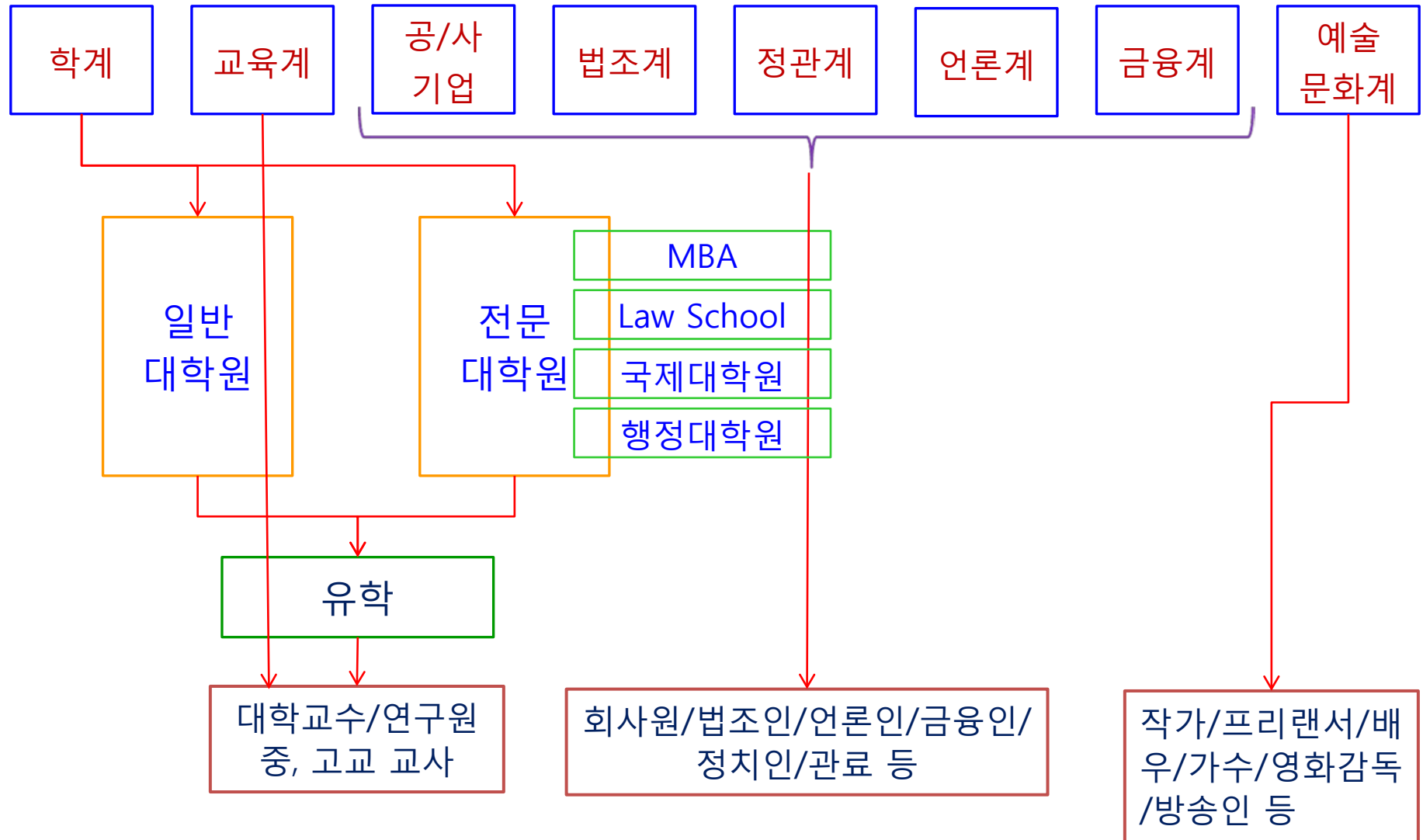
체계구축
의 기축 2



국어국문학과/중어중문학과/영어영문학과/불어불문학과/독어독문학과/서어서문학과/노어노문학과/언어학과/아시아언어문명학부/국사학과/동양사학과/서양사학과/고고미술사학과/철학과/미학과/종교학과 : 총 16개 학과/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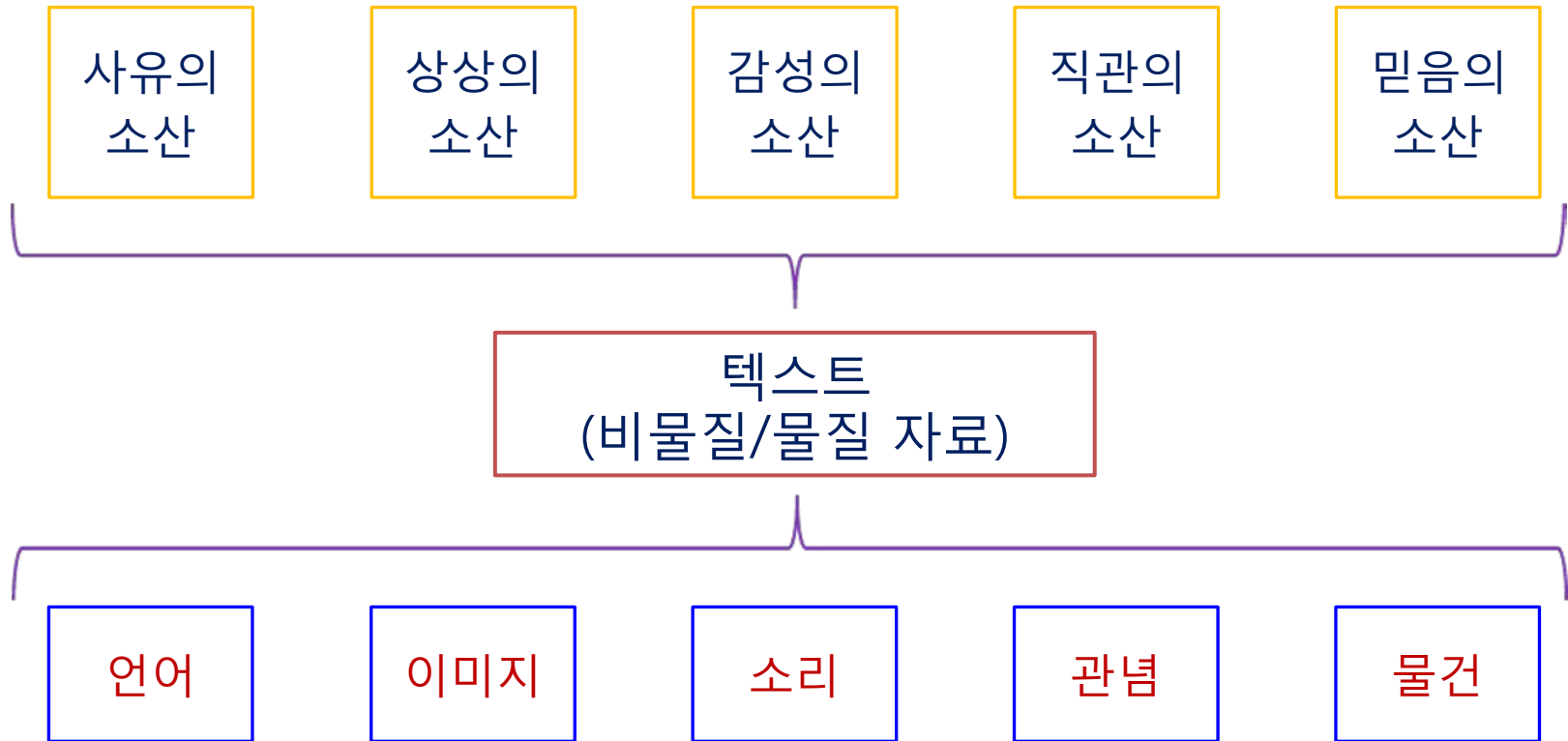
연계전공(5) : 고전문헌학/인문데이터/정치-경제-철학/라틴아메리카학/러시아학
연합전공(1) : 동아시아비교인문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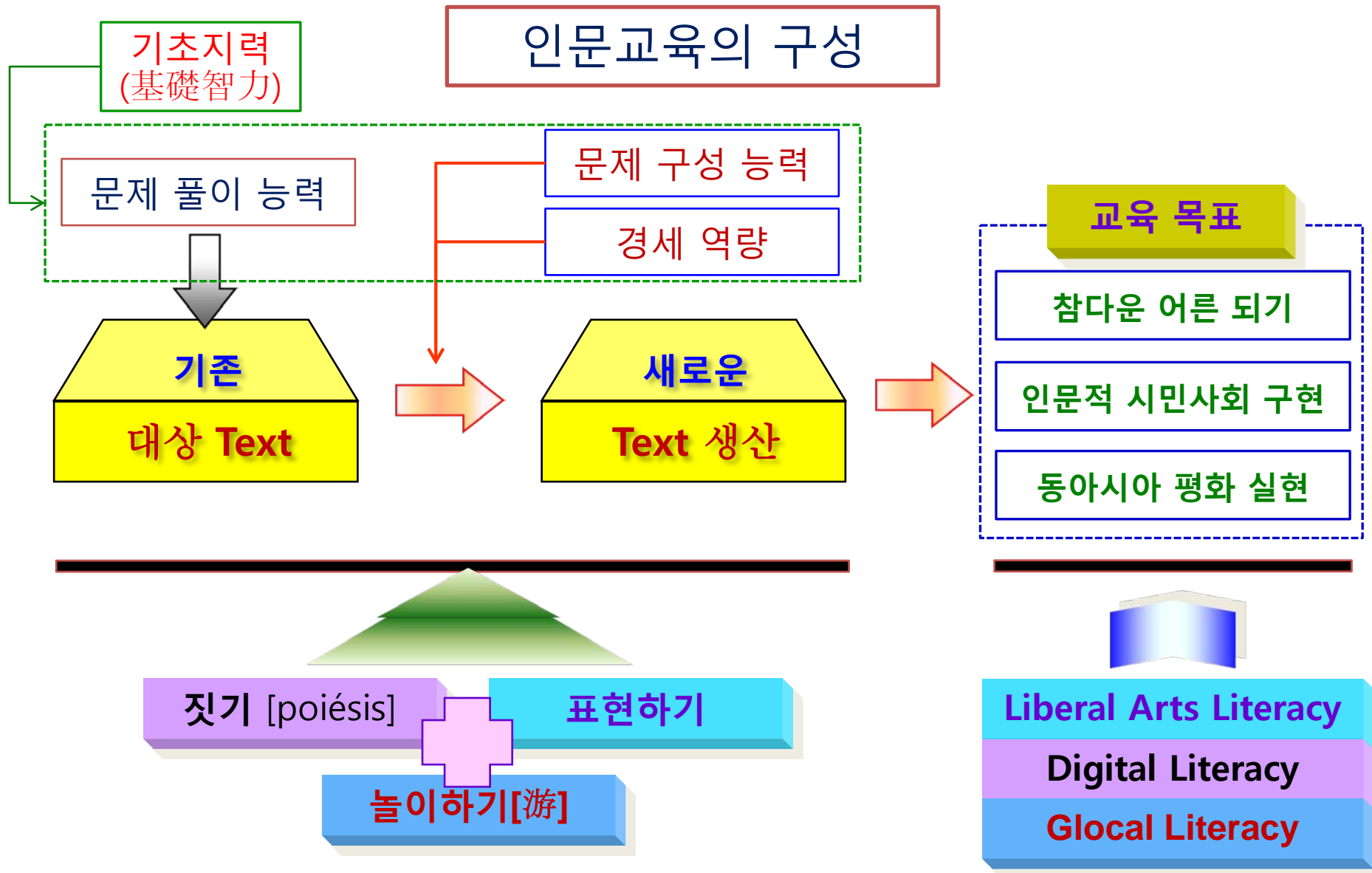
서울대 인문대학 졸업 후의 진로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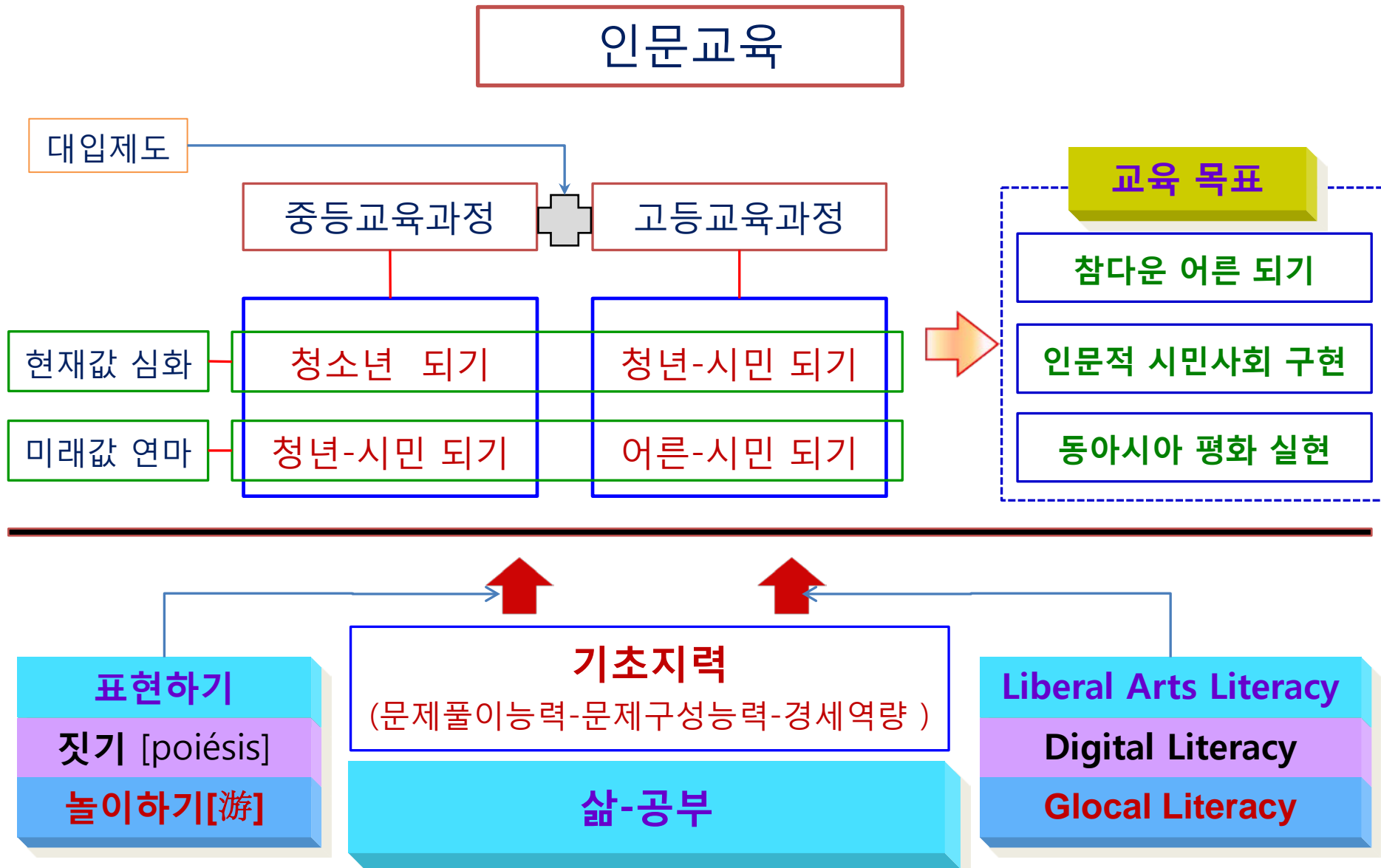


인문대 대학원 : 16개 학과/부별 대학원

+) 5개 협동과정 - 비교문학, 공연예술학, 서양고전학, 인지과학, 기록학







문제 구성 능력 : 대학은 '문제 구성 역량'을 갖추주는 곳이어야 한다.

- 문제 해결 능력은 비유컨대 기존 매뉴얼대로 잘 처리하는 능력. 문제 구성 능력은 기존 매뉴얼을 갱신해갈 수 있는, 그래서 새로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줄 아는 능력.
-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문제될 수 있는 바를 미연에 찾아내고, 그 적절한 해결 방안을 앞서 마련할 수 있는 역량. +) "세상 환난 가운데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, 겉으론 태평 무사하지만 이면에는 크나큰 우환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다. 그 번고를 방관하다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까 두렵다" - 蘇東坡, 「조조론(晁錯論)」
- 현상을 통해 내면을 통찰하고, 현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능력.
- 후행(後行)적 성찰과 선도적 통찰을 유의미한 수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
- 이런 면에서 문제 구성 역량은 현실 개선 능력이자 미래 구성 능력이기도 함.

경세(經世) 역량의 강화 : 경세학적 인문교양의 복원

- 수기치인(修己治人), 곧 개인적 차원의 수신(修身)과 사회적 차원의 경세(經世) 역량의 강화
+) 경세 = 자기 경영+(자기를 둘러싼 콘텍스트 경영->) 세상 경영
- 자기 삶과 공동체 삶의 지성적(지적+윤리적) 주도권의 복원, 강화
- '국가 경영의 동반자인 인문교양', '미래 사회 기획자인 인문교양'이란 가치의 실현
- '공공재'로서의 지식 창출 능력